

# 5분 자유발언

- 고성군 농수산물 특산품 개발 및 브랜드화 전략 -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대가면 지역구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성의 풍부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특산품 개발과 브랜드화 전략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대만·홍콩 출장에서

인상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샤오롱바오 하나로 15개국에 진출한 딤타이핑,

에그타르트로 70년 명성을 쌓은

타이청 베이커리를 직접 접했습니다.

한 가지 메뉴로 세계적 브랜드를 만든

이들의 성공 비결은 일관된 품질과

그 안에 담긴 스토리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 고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은 바다가 키운 신선한 해산물과  
들판이 빚어낸 건강한 농산물을  
함께 갖춘 지역입니다.

가리비, 굴, 갯장어 등

청정 바다의 해산물은 물론,

취나물, 부추, 참다래, 딸기, 방울토마토,

얇은뱅이밀 등 경쟁력 있는

우수 농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우수한 농수산물 대부분이  
원물 판매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과 브랜드화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달리 타 지역은  
이미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령 망개떡은  
2011년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어  
30억 원을 투입한 명품화사업으로  
공동브랜드를 완성했고,  
창녕군은 맥도날드와 협업하여  
총 170톤의 마늘을 공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성공 사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역 농산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특산물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입혀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와 일관된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성도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고성군은 2022년부터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백향과를 활용한 '공룡나라 워터젤리 고니'를  
제1호 가공품으로 출시했습니다.

이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고성본전비빔우동'과 '고성팥물도넛'을 개발하여  
작년 8월부터 관내 7개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성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 가공품 개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체계적인 브랜드 전략과 함께  
본격적인 특산품 가공산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섯 가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계절과 지역성을 반영한 특화 먹거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해산물 밀키트, 간편식, 건강빵, 전통떡,  
프리미엄 디저트 등  
계절별 대표상품 라인업을 구축하되,  
개발 단계부터 농가와 가공업체,  
식품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 및 전국 브랜드와의  
전략적 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창녕군이 맥도날드와 협업한 것처럼,  
프랜차이즈, 식품기업, 홈쇼핑, 대형마트와의  
공동기획으로 전국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셋째, 생산부터 유통까지 통합 시스템을  
완비해야 합니다.

계약재배 시스템, 로컬푸드 인증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현대화, 전문 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고성 특유 농산물의 품질 인증과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관광을  
연계해야 합니다.

공룡나라쇼핑몰 기능 개선,  
온라인 플랫폼 입점 확대,  
공룡엑스포와 해양관광지 연계 판매,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성만의 스토리를 담은  
브랜드 전략을 확립해야 합니다.

소가야 역사와 공통화석이라는  
독보적 자원을 제품 콘셉트와 패키지에 반영하여  
차별화된 정체성을 구축하고,  
디지털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성군의 농수산물 특산품 개발은  
단순한 가공사업이 아닙니다.  
농가 소득 증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현대화부터  
생산·유통 통합 시스템 구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메뉴로 세계적 브랜드를 만든 사례는  
우리 고성에도 가능합니다.

고성을 찾는 이들 누구나  
손에 들고 가고 싶은,  
고성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명품 특산품이 탄생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